

백일해 대유행... 제주 인구당 발생률 전국 최고

지난 23일 기준 도내서 역대 최다 444명 확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65.61명 평균 대비 2.5배 초·중·고교, 어린이집 등 27곳 집단 감염 분류

제주지역에서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성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전국 최고치로 치솟았다.

24일 질병관리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는 지난 23일 기준 444명이다.

이는 백일해 환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23년 만에 역대 최다 발생으로, 예년에 비해 수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도내에선 2019년 12명, 2020년 1명이 각각 백일해에 감염됐고, 2021년과 2022년에 환자가 없었다가 2023년에 다시 1명이 감염됐다.

백일해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처음엔 기침과 콧물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해 갑자기 짧게 여러 번 기침하는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는 백일해에 감염되면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백일해는 주로 기침을 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으면 환자 1명이 12명에서 17명까지 감염시킬 정도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제주에서 백일해 환자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한 시기는 올해 6월

이다.

올해 3월 도내에서 2명이 백일해에 감염된 후 지난 5월까지 전체 환자 수는 4명에 머물렀지만, 6월 들어 1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대유행의 조짐을 보였다. 이어 이번 달에만 332명이 감염돼 환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건잡을 수 없는 확산세에 제주지역의 인구 10만명당 백일해 발생률은 65.61명으로 치솟았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은 26.47명이다.

집단 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26곳, 어린이집 1곳 등 모두 27곳에서 환자 사이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고, 확진자 수가 2명 이상인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다보니 도내 전체 환자의 대부분인 87%가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급격한 확산세의 원인으로 계절 특성상 실내 환기가 어려운 점, 코로나19 이후 자연 면역력이 떨어진 점 등을 꼽았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창문을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지내다보니 바이러스가 실내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하면서



거북등처럼 갈라진 농경지.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24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한 농밭이 거북등처럼 갈라지며 농작물 생육을 방해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평소에 걸리기 쉬웠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자연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이번 같은 대유행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백일해 환자는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경우 5일간 격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침이 멈출 때까지 3주 이상 격리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위성데이터로 제주 지역문제 푼다"

도·제주TP, 제주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위성데이터로 제주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24년 제주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제공받은 위성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프로토타입 모델·서비스 개발해 심사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총 상금은 1000만원이며, 14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오는 8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대회 운영은 언어 모델 기반 인

공지능(AI) 서비스 개발전문기업인 인공지능팩토리가 맡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나 대회 안내 공식 홈페이지(<https://aifactory.space/page/jt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제주지역 학생과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25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설명회가 마련된다.

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수상한 기획안과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서비스·제품 적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일파만파'

티몬·위메프 등 쿠팡그룹 대금 정산지연 사태

제주 관광객 불만 속출... 관광협 "동향 파악중"

티몬과 위메프 등 쿠팡그룹 계열사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보름간 이어지며 피해가 입점 업체를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졌다.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정산 이슈를 우려하는 상당수 판매자들이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이미 판매한 상품을 거둬들이면서 여름휴가철을 맞아 제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제주도내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제주 여행 상품을 구입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대부분은 여행 일정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갑작스럽게 여행사 등으로부터 구매 취소 통보를 받아 금전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였다.

지난 6월 티몬에서 170만원 정도의 도내 한 호텔·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한 A씨는 "출발 일정을 며칠 앞두고 여행사 측으로부터 해당 상품을 취소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가족여행을 계획한 건데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못 드린 상태다. 급히 다른 곳을 예약하려 알아봤지만 큰 방은 이미 다 마감된 상태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 즉 판매자가 해당 업체에 등록된 상품을 고객이 구매하게 되면, 플랫폼은 결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정산해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금을 플랫폼이 정산 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큰 대형 입점 지점부터 중소 상공인까지 이탈 사태가 벌어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관광협회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없다"면서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채원기자

무더위 식힐 반짝 비소식... 25~26일 비날씨

점점더위를 잠시 식힐 비소식이 예보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5일 낮부터 늦은 밤까지 제주에 비가 올 것이라고 24일 예보했다.

이 기간 예상 강수량은 20~60mm다. 다만 비는 남서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내리고, 북부 해안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내려 지역별로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또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썩

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제주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26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예상 강수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25일부터 제주에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토평공업단지 야적장 화재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업단지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 접수 8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2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8분쯤 토평공업단지 야적장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초기 진화까지 8시간 넘게 걸렸다. 진선희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사랑으로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고사리육개장 제주몹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몹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